

정인영 연구원

요약

최근 중국에서는 온라인플랫폼기업들의 P2P공제사업 중단이 이어지고 있음. 이는 감독당국의 규제강화 발표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확대, 고객 기반 감소와 수익원 확보 어려움에 따른 실적 악화에 기인함.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계약자보호를 위해 P2P공제사업을 향후 관리감독 대상으로 편입시킬 계획을 밝혀 향후 규제차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사고발생률 증가에 따른 개인분담금 증가로 가입자들의 탈퇴가 이어지고 있음

- 그동안 중국에서는 온라인플랫폼기업들이 ‘P2P공제(P2P互助)<sup>1)</sup>’ 사업에 진출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사업 중단 발표가 이어지고 있음<sup>2)</sup>
  - P2P공제(Network Mutual Aid)는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고액의 중대질병이나 상해·사고 발생 시 가입자들이 해당 의료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고, 플랫폼기업은 관리·운영비를 징수하는 구조임
    - ’11년 온라인 상호부조(互助) 상품인 ‘Anti-Cancer Commune’이 최초로 등장한 이후, ’18년 10월 알리바바그룹의 금융자회사인 앤트그룹(Ant Group)이 ‘상호보(相互保)’를 발표하면서 대중의 이목을 끌게 됨<sup>3)4)5)</sup>
  - P2P공제는 등장과 동시에 빠른 성장을 보였으나, ’20년 9월 바이두(Baidu)의 등화후주 사업이 중단되었고, 메이티야후주(’21년 1월), 칭송후주(’21년 3월), 수이디후주(’21년 3월) 등이 연이어 사업운영 중단을 발표하였음

〈표 1〉 중국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P2P 공제사업 중단

구분	등화후주(灯火互助) Lanhuo Mutual Aid	메이티안후주(美团互助) Meituan Mutual Aid	칭송후주(轻松互助) Easy Mutual Aid	수이디후주(水滴互助) Water Drop Mutual Aid
영업중단 (사업개시)	’20년 9월 9일 (2019년 11월)	’21년 1월 31일 (2019년 6월)	’21년 3월 24일 (2016년 4월)	’21년 3월 31일 (2016년 5월)
운영자	Baidu(百度)	Meituan	Easy Money	QFund(클라우드펀딩)

자료: 平安证券(2021. 4. 13)을 기초로 재정리함

- 플랫폼기업의 P2P공제사업 중단은 감독당국의 규제강화 발표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리스크(Compliance Risk) 확대, 역선택 증가 및 수익원 확보 어려움에 따른 실적 악화에 기인함

1) 본고에서 후주(互助)를 공제, 상호부조라는 용어로 사용함  
 2) 平安证券(2021. 4. 13), “网络互助关停浪潮来袭, 商业健康险下沉市场迎机遇”  
 3) 片山 ゆき(2020. 11. 10), “中国においてP2P保険が急速に普及する理由—中国「ネット互助プラン」が保険事業に与える影響に関する調査”  
 4) 中国金融新闻网(2021. 1. 21), “美团互助宣布关停 网络互助何去何从”  
 5) 중국의 주요 P2P공제 운영현황은 “이소양(2021. 1. 4), 「중국 P2P공제의 시장현황과 시사점」,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을 참조함

- '20년 9월,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는 P2P공제플랫폼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어 향후 가입자들에게 미칠 잠재적 위험이 상당할 것으로 지적하면서, 관리감독 대상으로 편입시킬 계획을 밝힘<sup>6)</sup>
  - P2P공제사업은 민영보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파산할 경우 적용되는 계약자보호조치가 취해질 수 없어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봄
  - 이에 미국이나 유럽의 P2P보험플랫폼과 같이 규제당국의 감독하에 합법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한편, P2P공제사업자는 플랫폼을 주축으로 한 주력 사업이 따로 있는 가운데, 향후 P2P공제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보험경영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자본금 등 요건이 까다로워, 규제차익 감소가 예상됨
  
- 또한 P2P공제의 사고발생률 증가로 가입자의 이탈과 역선택이 발생하고 있으며, P2P공제사업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다른 수익원 확보가 불가능하여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sup>7)</sup>
  - P2P공제는 위험집단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 부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로, '회원 간의 상부상조'를 기반으로 소액의 부담을 구가했던 만큼 사고발생률이 증가하자 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하면서<sup>8)</sup> 이에 부담을 느낀 건강한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이탈이 발생함<sup>9)</sup>
    - P2P공제는 더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언더라이팅이 매우 느슨하거나 불완전한 경우가 일반적임
    - 가입 고객층은 기존 보험회사에 비해 연령층이 낮고, 3선(Third tier) 이하 도시 및 농촌 구성원이 주축을 이루는 가운데 가입자의 약 80%가 연 소득 10만 위안 미만의 저소득 계층으로 가격민감도가 높음
    - 한편 기존 보험시장에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보장을 얻을 수 있는 의료보험, 예를 들면 각 시(市)가 보험회사와 제휴하여 제공하는 '취민보(惠民保)'<sup>10)</sup>나 인터넷보험으로의 전환도 고객이탈의 원인으로 지목됨
  - P2P공제사업 운영자는 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수수료만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음
    - P2P공제사업자마다 차이는 있으나, 상호보와 수이드후주의 경우 보험금 확인 및 결제 등 운영비용 충당을 위한 관리수수료를 기금의 8%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음
    - P2P공제사업 운영자는 보험위험을 부담하지도 않고, 기금이 급여 지급으로 모두 충당되기 때문에 민영보험사와 달리 운용이나 투자가 불가능함
  
- 향후 P2P공제사업자 중 가입자 규모가 가장 큰 앵트그룹의 상호보(相互宝, Xiang Hu Bao)<sup>11)</sup> 대응 방식에 따라 P2P공제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편, 플랫폼기업의 P2P공제사업 운영 중단이 본격화될 경우 민영보험회사는 P2P공제에서 탈퇴한 회원들을 흡수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및 보장범위 확대 등 건강보험상품 개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sup>12)</sup>

6) 中国銀行保險監督管理委員會(2020. 9. 3), “非法商业保险活动分析及对策建议研究”

7) 平安证券(2021. 4. 13), “网络互助失信浪潮来袭, 商业健康险下沉市场迎机遇”

8) 상호보의 월 부담액은 2019년 29위안에서 2020년 91위안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9) '상호보(相互宝)'의 경우 '20년 9월부터, '수이드후주(水滴互助)'의 경우 '19년 4월부터 참여자 수가 감소하고 있음(부록 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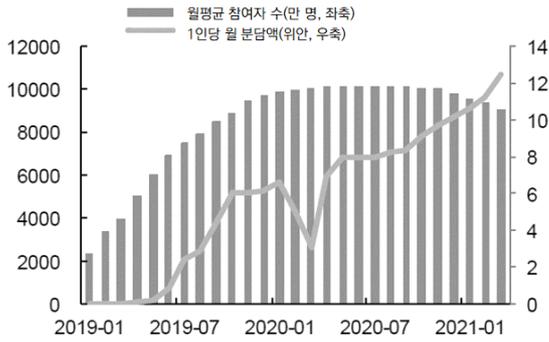
10) 취민보(惠民保, Huminbao)에 관한 내용은 “정인영(2021. 6. 7), 「중국 도시맞춤형 민영의료보험 현황」,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을 참조함

11) 앵트그룹의 상호보 가입자 수는 약 9천만 명 수준으로, P2P공제사업자 중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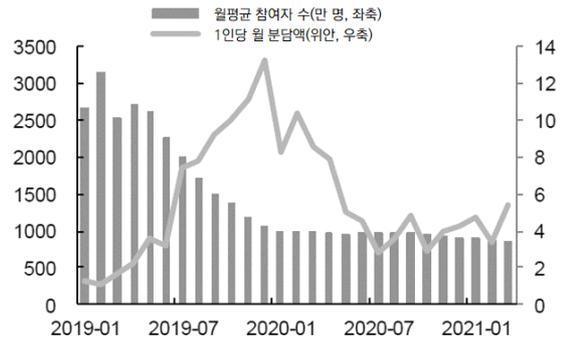
12) 平安证券(2021. 4. 13), “网络互助失信浪潮来袭”, 商业健康险下沉市场迎机遇

〈부록 그림 1〉 P2P 공제 플랫폼 참여자 수 및 1인당 분담액 추이

〈상호보(相互宝, Xiang Hu Ba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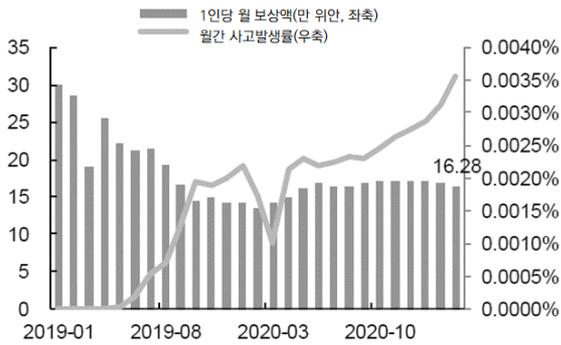
〈수이디후주(水滴互助, Water Dr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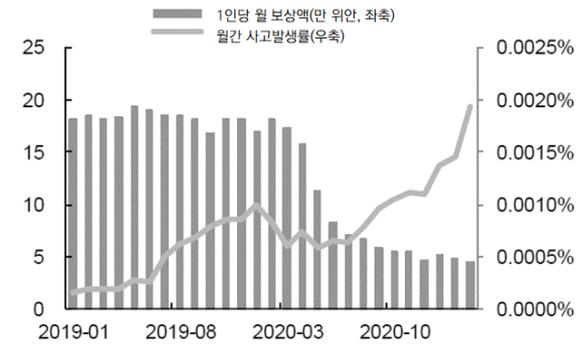
자료: 平安証券(2021)

〈부록 그림 2〉 1인당 월 보상액과 사고발생률(이환율)

〈상호보(相互宝, Xiang Hu Bao)〉



〈수이디후주(水滴互助, Water Drop)〉



자료: 平安証券(2021)